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 연구

이 은 아 · 정 혜 정*[†]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 According to Family Related Variables

Eun-A Lee · Hye-Jeong Chung*[†]

**College of Home Economic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family related variables with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s. Family related variables were consisted of (a) family's general characteristics (i.e., occupation, income, etc.) and (b) family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i.e.,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level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 children).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s were also analyzed according to adolescents'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sex, grade, birth order, school achievement level, and relig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77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Chonju by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requency level of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s across adolescents' sex, grade, birth order, school achievement level, and religion, and across mother's occupation, and subjective living level. The delinquent behaviors were also negatively correlated with most of family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communication of adolescent children with their father and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 were most significant variables influencing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s.

KEY WORD : Adolescents' maladjustment, Adolescents' delinquency,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 children.

[†]Corresponding author : College of Home Economic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ju 561-756, Korea
Tel : 063-270-3828, Fax : 063-270-3839
E-mail : chunghj@moak.chonbuk.ac.kr

I. 서론

오늘날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현대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이다.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청소년 부적응의 두 가지 양상, 즉 심리적 부적응과 행동적 부적응의 후자에 해당하는 현상으로 이러한 부적응 현상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장, 성취, 복지증진에 장애가 된다(정옥분, 1998). 청소년 비행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공통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비행의 집단화, 포악화, 저연령화, 재학생 비행의 증가와 재범의 증가, 중·상류층 가정이나 정상가정 출신 청소년들의 뚜렷한 이유없는 비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연주, 1994).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 자신보다는 그들의 주변환경과 여건, 즉 가정과 사회환경 그리고 각종의 사회 병리 현상에 의한 가치관의 불건전한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청소년 비행의 동기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으로 환경은 매우 중요시된다. 환경적 요인은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가정은 인간이 출생하여 갖게 되는 최초의 사회집단으로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가정생활을 통하여 자아개념, 사회적 태도, 정서적 통제 및 기타 행동의 습관을 조성하는 기초적 훈련을 배우는 것이며 부모-자녀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방법과 양육태도, 형제와의 관계, 가정 분위기 등은 청소년의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본다(김영석, 1995).

지금까지 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된 청소년 비행의 관련 변인으로는 가정 및 가족과 관련된 변인이었다. 가정이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핵가족화'에 따르는 문제, 경제력 결핍과 관련된 '빈곤 가정'의 문제, '결손가정'의 문제, 청소년과 가족관계에 관한 문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나 부모의 양육태도의 문제, 부부관계의 질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 등 여러 가지 변인들이 언급되어져 왔다. 이는 대부분의 비행 행동이 청소년의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직결됨을 감안할 때 사회화의 일차적 집단인 가정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시도는 의의가 있으며 비행 및 정서장애의 발생과 문제

해결에 가족의 변인들이 중요하다는 연구들(Minunchin, 1967)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환경과 청소년 비행이 어느 면에서 어느 정도 관련을 지니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생활지도와 문제행동을 지도하는데 대한 정보를 시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가정환경 변인은 크게 가정의 일반적 특성 및 가족관계 특성으로 구분되어 연구되는 경향이 있었다. 즉 가정의 일반적 특성은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소득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가족관계 특성은 부모의 부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들 변인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일차적 환경인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비행이 가정환경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 또는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청소년 부적응의 예방과 치료에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비행

청소년의 비행은 청소년의 심리적 상태나 주변 환경과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는 하나의 표현행동이다. 비행은 넓은 의미로는 반사회적 행위와 비사회적 행위인 불량행위를 포함하며, 좁은 의미로는 반사회적 행위만을 의미한다(Gallagher, McCartney, 1977).

우리나라 "소년법 4조"에 의하면 소년비행, 즉 청소년 비행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축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축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비행 소년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비행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년경찰의 보도(輔導) 대상에는 불량행위 소년과 요보호 소년도 포함시키고 있다. 김현정(1995)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형벌 법령 위반 및 불량행위로 규정하였으며, 박치섭(1996)은 '청소년들이 법률적으로 규정된 객관적 일탈행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사회적 가치체계를 침범하거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불량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 비행은 각종 법령을 위반하는 범법적인 반사회적 행위를 비롯하여 현행 형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사회적·도덕적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비도덕적인 행위, 미성년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 사회와 집단생활에 부적응 행동 등을 모두 포괄한 광범위한 개념이 된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은 과거나 현재의 객관적인 행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잠재적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은 가능한 형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교육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linard와 Quinney(1973)의 범죄유형 분류와 Sanders(1981)의 청소년 비행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비행 유형을 4개 하위 영역(지위, 폭력, 재산, 성)으로 구분하였다. 지위비행은 법적으로 범죄는 아니나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비행으로 간주되는 행위이며, 폭력비행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입힐 의도가 있는 행위, 재산비행은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는 행위, 성비행은 성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행위이고 이들 비행을 종합적으로 일컬어 '전체 비행'이라 하였다.

청소년 비행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공식 통계에 의한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는 1992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6년에는 1992년에 비하여 48.0%가 증가하여 전체 범죄의 증가율(30.9%)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정옥분, 1998). 또한 자기보고조사나 피해자조사를 통해 비행의 현황을 파악했을 때, 공식통계에 의해 제시된 결과들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거나 비행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질러진 비행의 많은 부분이 경찰에 의해서 인지되지 않으며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소한 비행들이 청소년들간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죄질이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주는 바로 이러한 비행일 것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2.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된 가정환경 변인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된 가정환경 변인으로는 가정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관계 특성을 들 수 있다. 가정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정의 소득수준 등의 요인들이 있다. 이러한 가정환경과 청소년 비행과의 선행 연구들은 가정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관계 특성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직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아버지의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직업수준이 낮을 때 비행이 많았다는 연구결과(김혜래, 1985; 이금옥, 1988; 이동석, 1986; 청소년문제연구소, 1989; 형사정책연구원, 1993)가 있는 반면, 강경태(1993)는 아버지의 직업수준이 청소년 비행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선남(1994)은 부모의 직업이 비행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비행이 유발한다는 연구결과(이금옥, 1988; 이동석, 1986; 형사정책연구원, 1993)가 있으나, 청소년문제연구소(1989)의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직업이 비행과 무관하다고 보고하여 어머니의 직업과 비행의 관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셋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부적응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 부적응, 특히 비행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는데 많은 선행 연구들(김광수, 1990; 이태원, 1991; Berman, Eaglstein, 1988; Mckay, Shaw, 1969)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비행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연구한 이장현(1978)은 소년비행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하류계층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밝혔다.

한편 국내의 연구들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행과 그다지 관련이 없다는 결과들도 많이 있는데 김성민(1994), 남재봉(1991), 노성향(1994)과 유혜경(1986)은 양자간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김선남(1994), 김순형(1995),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행행동과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유배호(1990)는 중·상류층 청소년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어 반드시 빈곤가정의 청소년이 비행을 범한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특히 가정의 소득

과 관련하여, 김제한(1984), 최명복(1979), 표갑수(1980)의 조사에서 비행성이 가정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밝히고 있으며,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1993)에 의하면 가정의 수입이 낮을수록 비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순형(1995)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의 연구결과 가정의 소득면에서 수입이 높은 가정의 자녀들이 비행이 많았음을 보고하여 기존의 연구들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심영희(1981)는 한국의 숨은 비행의 사회학적 연구에서 숨은 비행에 대한 자기 보고서식 연구를 통해 청소년 비행이 하류계층에 편중되어 있지 않고 사회계층상 분포는 고르게 나타나며 차이가 없다고 함으로써 공식비행과 숨은 비행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가질만하다(유배호, 1990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의 불일치로 인하여 가정의 일반적 특성과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의 관계가 명료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일반적 특성이 청소년 비행에 작용하는 중요한 환경적 변인일 것으로 가정하고 이 변인에 따라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한편 가족관계 특성으로는 부모의 부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비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다.

첫째, 부모의 부부관계로 부부는 가족내에서 모든 관계의 핵심이 되므로 가족 문제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부모의 역할에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자녀 비행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며(Minuchin, 1967; Satir, 1964), 부부간의 불화는 가정의 갈등적이고 역기능적인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공격적 행동에 관련된 요인이 될 수 있다(김선미, 1995에서 재인용). 자녀의 행동중 공격성과 반항행동과 같은 외형적인 행동에서의 문제행동과 전반적인 부부생활 적응간의 관련 여부에 관한 연구(Emery, 1982; O'Leary, Emery, 1984) 결과를 보면, 여아의 경우보다 남아의 경우 일관성 있게 유의미한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부부간의 불화는 자녀의 공격적 행동뿐만 아니라 성인범죄의 선행요인으로도 주목받았으며(McCord, 1979), Larzelere와 Patterson(1990)은 부부간의 갈등이 부모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부모가 부적절한 가족관리를 하여 결국

에는 자녀가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빠져들기 쉽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불화가 많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비행이 많아진다는 연구결과(김영미, 이명숙, 1993; 양정국, 1987; 민병근, 1997; 청소년지도육성회, 1989)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갈등이나 불화가 있는 부부관계는 자녀에게 영향을 끼쳐 자녀가 불안정하게 되고 결국은 자녀의 비행 수준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비행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ilson(1980)은 빈민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감독과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부모의 적절한 감독이 주위 환경의 영향을 완충시키며 위험정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Harriett, Wilson, 1980). Jenkins의 범죄소년에 관한 연구에서도 부모 및 가족원의 거부적 태도는 자녀의 반사회적, 비사회적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았으며, Mussen(1979)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지나치게 통제적이거나 강압적일 때 자녀의 비행빈도가 많아진다고 주장하였다(김성연, 1998에서 재인용). 외국의 많은 연구결과들(Bandura, Walters, 1959; Glueck, 1950; McCord, 1959)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적이고 통제적일 때 비행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김선미, 1995에서 재인용).

한편 국내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부모의 거부적이거나 방임적 태도, 권위적 태도, 통제적 태도, 과보호 등이 청소년 자녀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강경아 등, 1998; 김준호, 1990; 이동자, 1993; 이말숙, 1990; 한종국, 199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가 있다. 또한 훈육 방법중 무관심과 방임이 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김선미, 1995; 김순형, 1995; 김연주, 1994)도 있으며, 김광문(1982)의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79.5%가 비행 원인을 부모의 무관심과 가정교육의 불충분이라고 대답하였다고 보고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 통제나 과보호 등이 청소년 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노성향, 1994에서 재인용).

셋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으로 Rutter와 Giller(1984)는 비행아의 부모·자녀 관계는 밀접한 의사소통이 없으며 상호 이해나 애정이 없고 서로 무관심한 관계라고 하였다. Kaffka와 London(1991)은 부모중 한 명하고

만이라도 대화를 개방적으로 하면 약물사용 정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으며 이는 부모가 일차적으로 도덕적 권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김현정, 1995에서 재인용).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자녀간의 폐쇄적이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경화, 1989; 김윤희, 1989; 김주분, 1994). 정혜영(1986)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만족감이 높을수록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의 비행 행동은 부모의 효율성 있는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혹은 부적절한 사용으로 특징지어지는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현정, 1995).

이상의 가정환경 변인 이외에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강경아 등, 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학년(노성향, 1994; 한종국, 199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형제순위(김성연, 1998; Hirschi, 1983; Ney, 1974), 성적(노성향, 1994; 윤동기, 1986), 종교 등도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행을 분석하고 그 결과 가정환경 변인이 비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할 때 청소년과 가정의 일반적 특성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청소년과 가정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에는 차이가 있는가?
- 2)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특성과 비행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3) 관련 변인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는 1999년 9월 6일부터 11일까지 40명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조사는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전주시 소재의 4개 중학교와 4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6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580부를 수집하였으며, 이 가운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질문지 3부를 제외한 577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290명, 여학생이 287명, 학년별 분포는 중학생 297명, 고등학생 280명으로 성별과 학년별로 고루 표집하였으며 종교별로는 기독교 345명, 불교 41명, 무교 181명이었고, 형제순위는 첫째 231명, 중간 83명, 막내 237명, 독자 25명이었다. 또한 조사대상자 스스로 지각한 성적은 상위권 226명, 중위권 164명, 하위권 183명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1) 일반적 특성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형제순위, 성적, 종교 유무 등과 가정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유무, 가정의 월평균소득, 생활수준 등을 측정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근로자와 숙련공을 묶어 단순직으로, 판매직과 사무직을 묶어 중급직으로, 관리직

〈표 1〉 가정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	변인	구분	빈도 (%)
부의 연령	40세 미만	23 4.3	모의 연령	40세 미만	115 21.0
	40~45세 미만	207 38.4		40~45세 미만	310 56.6
	45~50세 미만	225 41.7		45세 이상	123 22.5
	50세 이상	84 15.6			
부의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6 15.6	모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149 26.6
	고 졸	252 45.5		고 졸	303 54.1
	대 졸	150 27.1		대졸이상	108 19.3
	대학원 이상	66 11.9			
부의 직업	단순직	169 30.9	모의 직업	유 무	212 38.0
	중급직	276 50.5			346 62.0
	전문직	91 16.6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90 16.5	생활 수준	상류층	112 19.5
	100~200만원 미만	243 44.4		중류층	359 62.4
	200~300만원 미만	162 29.6		하류층	104 18.1
	300만원 이상	52 9.5			

과 전문직을 묶어 전문직으로 분류하였고, 성적과 가정의 생활수준은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것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2) 가족관계 측정

(1) 부모의 부부관계 척도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는 Olson, Fournier와 Druckmen(1982)에 의해 개발된 ENRICH(Enriching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의 12개 하위요인 중 부부만족도 요인을 김선미(1995)가 번안하여 수정한 부부관계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질문지로 '부가 모에 대해 가지는 평소 생각' 10문항, '모가 부에 대해 가지는 평소 생각' 10문항을 자녀에게 응답케 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부모의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점수화하였다. 부부관계 척도의 신뢰도는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부부관계는 Cronbach's $\alpha = .76$, 어머니의 부부관계는 $\alpha = .79$ 이었다.

(2)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는 Parker(1978)의 Parent Bonding Instrument를 이대 간호학과에서 22문항으로 수정한 것(노춘희, 1983)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돌봄, 애정, 친밀, 통제, 간섭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8문항으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각각 14문항씩 구성되어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도록 점수화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신뢰도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alpha = .83$, 어머니의 양육태도 $\alpha = .84$ 이었다.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 PACI)로 김성연(1998)이 수정, 번안한 것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하여 각각 12문항씩 답하게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개방형 의사소통에 관한 7문항과 폐쇄형 의사소통에 관한 5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형 척도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점수화 하였다. 신뢰도 산출 결과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alpha = .84$,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alpha = .84$ 이었다.

(4) 비행 척도

청소년의 비행 척도는 심응철(1992)이 Clinard와 Quinney(1973)의 범죄유형 분류와 Sanders(1981)의 청소년 비행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구성한 '청소년 비행경험에 관한 질문지'(34개 문항으로 구성) 가운데 서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2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하위 유형에 따라 지위비행에 관한 7개 문항, 폭력비행에 관한 5개 문항, 재산비행에 관한 4개 문항, 성비행에 관한 5개 문항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문항들은 응답자의 경험정도에 따라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비행의 경험정도를 측정하였다. 비행 척도의 신뢰도는 지위비행 $\alpha = .75$, 폭력비행 $\alpha = .73$, 재산비행 $\alpha = .53$, 성비행 $\alpha = .59$ 였으며 전체비행은 $\alpha = .89$ 로 나타났다.

IV.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행의 차이

청소년 비행의 각 하위영역별 빈도를 살펴본 결과, 지위비행 2.94%, 폭력비행 1.06%, 재산비행 1.25%, 성비행 0.97%로 나타나 지위비행의 경험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행의 차이 결과는 <표 2>와 같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행의 차이 결과, 먼저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은 하위요인 모두와 전체비행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비행을 보였다. 이것은 국내외의 여러 연구 결과(김선미, 1995; 김성연, 1998; 김현정, 1995; 노성향, 1994; FBI Uniform Crime Reports, 1992; Meda Lind, Randallg, 1992)와 일치한다.

둘째,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은 전체비행과 지위

비행, 성비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비행경험이 더 많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비행을 하고 있음을 밝힌 국내의 여러 연구결과(김성연, 1998; 김현정, 1995; 민하영, 1991; 청소년문제연구소, 198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와 일치한다.

셋째, 형제순위에 따른 비행의 차이는 전체비행, 폭력비행, 성비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전체비행은 독자인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행의 하위영역인 폭력비행은 형제순위가 막내, 독자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성비행에서는 독자인 경우에 비행의 경험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첫째나 중간인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넷째, 성적에 따라 비행의 수준은 전체비행과 하위영역인 지위비행, 폭력비행, 성비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으며 성적이 하위권인 집단이 중·상위권 집단보다

비행 빈도가 더 높았다. 이는 윤동기(1986)의 학업부진아의 비행이 많았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나 비행이 성적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노성향(1994)의 연구와는 상반된다.

마지막으로, 종교 유무에 따른 분석결과, 지위비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종교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 청소년의 비행경험이 많았다. 그러나 전체비행 및 폭력, 재산, 성 비행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차이 결과, 어머니의 직업유무, 생활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부모의 직업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비행은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에 청소년 자녀의 비행 경험정도가 높았다. 이것은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자녀의 비행이 많았다는 기존의 선행연구(김순형, 1995; 이금옥, 1988; 이동석, 1986)와 일치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비행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행의 차이

		M(SD)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	전체비행
성별	남	3.19(1.60)	1.36(1.24)	1.77(1.08)	1.24(0.90)	7.63(3.90)
	여	2.22(1.45)	0.55(0.64)	0.83(0.93)	0.56(0.63)	4.10(2.73)
	t 값	7.61***	9.78***	11.17***	10.50***	12.38***
학년	중	2.39(1.57)	0.94(1.04)	1.26(1.07)	0.81(0.85)	5.38(3.74)
	고	3.05(1.56)	0.98(1.10)	1.35(1.15)	1.01(0.84)	6.39(3.78)
	t 값	-5.04***	-0.48	-0.96	-2.79**	-3.16**
형제 순위	첫째	2.56(1.60)	0.91(1.03)	1.24(1.11)	0.81(0.80) A	5.54(3.71) AB
	중간	2.59(1.64)	0.68(0.89)	1.23(1.09)	0.83(0.76) A	5.30(3.60) A
	막내	2.87(1.59)	1.08(1.14)	1.37(1.11)	1.00(0.86) AB	6.31(3.86) AB
	독자	3.04(1.49)	1.08(1.08)	1.56(1.19)	1.20(1.26) B	6.88(4.14) B
	F 값	1.98	2.98*	1.03	3.44*	2.82*
성적	상	2.55(1.46) A	0.92(1.02) A	1.25(1.09)	0.83(0.73) A	5.55(3.32) A
	중	2.29(1.47) A	0.75(0.79) A	1.27(1.13)	0.80(0.75) A	5.09(3.36) A
	하	3.28(1.72) B	1.17(1.30) B	1.42(1.13)	1.10(1.03) B	6.97(4.42) B
	F 값	19.54***	6.70**	1.34	7.04**	12.05***
종교	유	2.61(1.60)	0.92(1.04)	1.25(1.07)	0.88(0.83)	5.67(3.73)
	무	2.90(1.58)	1.02(1.12)	1.39(1.21)	0.96(0.89)	6.29(3.92)
	t 값	-1.98*	-0.96	-1.32	-1.06	-1.79
모의 직업	유	2.89(1.61)	1.05(1.06)	1.44(1.10)	0.99(0.83)	6.35(3.63)
	무	2.58(1.59)	0.90(1.05)	1.23(1.13)	0.86(0.85)	5.57(3.86)
	t 값	2.21*	1.63	2.09*	1.78	2.33*
생활 수준	상	2.54(1.67) A	1.04(1.09) A	1.41(1.16) AB	0.94(0.96) AB	5.87(4.09) A
	중	2.64(1.57) A	0.84(0.92) AB	1.19(1.06) A	0.83(0.76) A	5.51(3.46) A
	하	3.06(1.61) B	1.22(1.37) B	1.57(1.17) B	1.08(0.93) B	6.95(4.24) B
	F 값	3.43*	5.46**	5.38**	3.54*	5.86**

* p < .05 ** p < .01 *** p < .001

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Social Position) 중 하나인 직업에 따라서 그 청소년 자녀의 비행수준이 관계가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김병희, 1995; 김수정, 1997; 청소년문제연구소, 1989)와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가정의 월평균소득에 따라서는 비행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청소년 자신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라 전체비행과 비행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전체비행은 하류층이 중·상류층보다 경험정도가 많았고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은 하류층이 중류층이나 상류층보다 경험정도가 더 많았다. 한편, 가정의 월평균소득에 따라 청소년 비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는 소득이 적은 가정의 청소년이 비행을 많이 행한다는 여러 연구결과(김병희, 1995; 김성연, 1998; 정상배, 1993 등 다수)와는 다른 결과이다.

2. 가족관계 특성과 비행의 상관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특성과 비행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부모 모두 청소년의 비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부부관계와 양육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비행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부부관계와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부모-자녀간에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비행도 낮았다. 이는 김선미(1995), 김현정(1995), 노성향(1994)의 연구결과 및 기존의 일반적인 연구결과(민하영, 1991; 송성자, 1987; Hirschi, 1970)와 일치한다. 한편, 비행의 하위 영역간에 상관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본

<표 3> 가족관계 특성과 비행의 상관관계

변인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	전체비행	
아버지	부부관계	-0.22***	-0.08	-0.20***	-0.20***	-0.23***
	양육태도	-0.17***	-0.10*	-0.17***	-0.17***	-0.20***
	의사소통	-0.16***	-0.07	-0.16***	-0.17***	-0.18***
어머니	부부관계	-0.18***	-0.06	-0.15**	-0.17***	-0.19***
	양육태도	-0.22***	-0.15**	-0.24***	-0.21***	-0.26***
	의사소통	-0.20***	-0.15***	-0.24***	-0.18***	-0.24***

* p < .05 ** p < .01 *** p < .001

결과 r = .50 ~ .86의 상관관계를 보여 비교적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비행들이 거의 동시에 일어남을 보여준다.

3. 비행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관련 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하는 입력(ENTER) 방법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앞서 실시한 청소년과 가정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행의 차이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들과 가족관계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청소년의 전체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성적,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학년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성적이 하위권일 때,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전체비행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일수록 비행이 더 많았다. 이들 변인의 전체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40%로 나타났다.

비행의 하위요인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성적, 학년, 부모의 양육태도이었다. 즉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성적이 하위권일 때,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지위비행은 높게 나타났다. 이들 변인의 지위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29%로 나타났다.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적, 성별, 생활수준이었다. 즉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성적이 중위권 이상의 집단보다 하위권인 집단이, 생활수준이 중류층 이상의 집단보다 하류층 집단의 청소년 자녀의 폭력비행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변인의 폭력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25% 이었다. 재산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재산비행이 많았으며 이 변인의 재산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29%로 나타났다. 성비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성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 성적으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0%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버지가 무직일 때,

〈표 4〉 청소년 비행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종속변수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		전체비행	
		b	β	b	β	b	β	b	β	b	β
일반적 특성	성별 ^a	1.01	.31***	.91	.42***	.99	.43***	.71	.40***	3.68	.47***
	학년 ^a	-.64	-.20***	.01	.01	.02	-.01	-.13	-.07	-.76	-.10*
	성적 ^a	-.86	-.24***	-.38	-.76***	-.15	-.06	-.31	-.16***	-1.72	-.20***
	모의 직업유무 ^a	.02	.01	.06	.03	.05	.02	.03	.02	.11	.01
	생활수준 ^a	.14	.03	-.30	-.10*	-.11	-.03	.13	-.02	-.33	-.03
가족 관계 특성	부의 부부관계	-.34	-.14	.02	.01	.05	-.03	.08	-.06	-.50	-.08
	모의 부부관계	.13	.06	.05	.04	.03	-.02	.02	-.02	.13	.03
	부의 양육태도	.21	.08*	.08	.05	.02	.01	.28	.20*	.62	.10
	모의 양육태도	-.46	-.18*	-.18	-.10	-.20	-.11	-.29	-.20*	-1.13	-.18*
	부와의 의사소통	-.26	-.12	-.12	-.08	-.15	-.10	-.33	-.26***	-.88	-.16*
	모와의 의사소통	.03	.02	.03	-.02	-.13	-.09	.10	.09	.01	-.00
Constant		5.62		1.61		3.03		1.64		11.92	
R ²		.29		.25		.29		.30		.40	
F		11.06***		9.15***		11.28***		11.83***		17.98***	
Durbin-Watson 계수		2.02		1.89		1.86		2.06		1.93	

* p <.05 ** p <.01 *** p <.001
a : 가변인 - 성별 : 남=1, 여=0 학년 : 중=1, 고=0
생활수준 : 상, 중=1, 하=0 성적 : 상, 중=1, 하=0
모취업 유무 : 유=1, 무=0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행경험이 많았다는 김성연(1998), 노성향(199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관계 특성으로 구성된 가정환경 변인이 청소년 비행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관련 변인들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전북 전주시 소재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 577명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비행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한 결과,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형제순위가 독자인 경우, 성적이 하위권인 경우에 비행 수준이 더 높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성적이 하위권인 경우에 이에 대한 스트레스와 갈등이 비행 행동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자녀의 일반적 특성과 비행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초점을 둔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자녀는 성장함에 따라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를 경험하게 되며 이 시기에는 민감해지고 반항적이며 독립적이 되려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부모-자녀관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대화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작과 보급이 시급하다. 특히 비행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남학생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선도 및 예방 대책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결과,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생활수준이 낮다고 지각한 경우에 청소년 자녀의 비행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취업모인 경우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음에 따라 자녀에게 충분한 애정과 친밀감을 보여주지 못하며, 청소년 자녀의 급격한 성장과 변화의 특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면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비행이 가정의 일반적 특성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학교나 사회단체의 상담이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시 가정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가정환경의 전반적인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양육태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비행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청소년 자녀가 부모와 친밀감을 느끼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등의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수록 그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부모가 애정적이고 온정적이며 동시에 적절한 권위가 있는 양육 태도로 자녀를 양육할수록 비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회 제공, 상담기관 등의 사회적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관련 변인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영향력의 분석 결과, 특히 성비행에서 가족관계 변인 중 아버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더 큰 상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김경화, 1989; 서경숙, 1984; 민하영, 1991)와도 맥을 같이 한다(김선미; 1995에서 재인용). 즉 부모는 자녀에 대해 행동의 규범을 제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버지와 아버지와의 부정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아버지-자녀간의 관계가 밀접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급격한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함께 성적 성숙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 자녀에게 올바른 성의식과 성역할에 대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아닌 폐쇄적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자녀의 도덕성과 자기통제력을 충분히 계발하지 못하게 되어 자녀의 일탈가능성과 초기비행을 적절히 감독, 지도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바람직하게 이루어질수록 청소년의 비행은 줄어들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가정에서의 청소년 자녀의 교육이 어머니의 몫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해 밝힌 선행 연구결과(이영환, 1999; Hawkins, Dollahite, 1997;

Parke, 1981; Snarey, 1993)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가부장적·권위적인 아버지의 태도에서 탈피하여 자녀의 욕구충족과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에 능동적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와 윤리적·발달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하고 노력하는 생산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사회 제도 및 여러 제반 여건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가정환경 변인과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는 큰 관련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부적응을 청소년 자신의 문제로서만 인식하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청소년의 문제는 가족 체계 내에서 즉 다양한 가정의 환경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은 가정을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과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어 이러한 접근을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속한 가족 체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부모교육 및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사회적, 교육적 차원에서 많이 개발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생활교육이나 가족상담 등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예방, 치료 프로그램을 활발히 적용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환경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를 파악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교육현장에서 청소년 부적응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및 대책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올바른 성장과 적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전주시 소재의 일부 중·고등학생을 표집하였고 또 조사대상자를 일반계 중·고등학생으로 표집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켜 확대 해석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외에도 실업계, 공업계, 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넓은 범위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성별, 성적,

학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등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변인을 청소년 자녀의 지각에만 의존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한 가족관계 특성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변수-형제관계, 교우관계, 학교환경, 사회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가정환경 변인과 더불어 여러 변수의 비행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고려한 거시적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1989).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통해서 본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XX.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4-02.
3.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1996). 청소년문제론. 서원, 서울
4. 강경아·류점숙·신효식(198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와 자녀의 부적응.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0(2), 43-55
5. 강경태(1993).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일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선남(1994). 청소년비행 관련 변수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김선미(1995). 가족관계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김성민(1994). 청소년비행에 관한 일 고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김성연(199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친밀감 및 신뢰감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김순형(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2-31.
11. 김연주(1994). 청소년비행의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김영석(1995).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김준호(1994). 청소년비행의 실태와 원인. 형사정책 연구, 5(1), 63-94
14. 김현수·민병근·김현실(1992). 청소년비행과 성격양상 및 가족역동간의 관계. 울산의대학술지, 1(1), 188-205.
15. 김현정(199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또래지위 및 호기심과 청소년 비행 성향과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남재봉(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 4합병호, 73-102.
17. 노성향(199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노춘희(1983). 지각된 부모의 태도 특성과 자녀의 우울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민병근·김현수(1997). 부부관계, 부부역동성 및 가정폭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36(5), 878-892.
20. 박치섭(1996). 청소년비행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변혜정(1998). 고등학생의 특성불안과 우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양정국(1987).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비행과 불량 집단형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유배호(1990). 청소년비행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유혜경(1986).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5. 윤동기(1986). 청소년의 학업 부적응과 비행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이경희, 김병희(1995).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환경과 비행과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연구 제5집, 95-119.
27. 이금옥(1988). 가정환경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 이동석(1986). 청소년비행의 환경요인 분석과 그 예방

12 한국가정과학회지 3(2) : 1~12, 2000
Korean J. of Human Ecology 3(2) : 1~12, 2000

- 및 선도 방안.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 이동자(1993). 가정환경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 이말숙(1990). 청소년 비행 유형과 부모의 자녀 양육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1. 이명숙·김영미(1993). 가족구조와 부모불화가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01-215.
32. 이영환(1999).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대한가정학회지* 37(12), 91-102
33. 정옥분(1998).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서울
34. 한중극(1992). 부모의 훈육, 자녀의 성격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 Barnes, H., & Olson, D.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36. Berman, Y. & Eaglstein, A.S.(1988). Commentary : Country of origin and socioeconomic level as changing predi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Ethnic Studies*, 16(2), 137-42.
37. Hawkins, A.J., Dollahite, D.C.(1997). Beyond the role-inadequacy perspective of fathering. In Hawkins, A.J., Dollahite, D.C.(Eds), *Generative fathering*. Sage Publication.
38. Larzelere, R.E., Patterson, G.R.(1990). Parental management : Mediator of the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early delinquency. *Criminology*, 28, 301-323
39. Minuchin, S., Montalvo, B.G., Guerney, B., Rosman, B.L., Schumer, F.(1967). *Families of the slums : An exploration of their structure & treatment*. New York: Basic Books.
40. Parke, R.D., Sawin, D.B.(1981). The father role in infancy. *Family Coordinator*, 25, 365-371.
41. Rutter, Giller(1984). *Juvenile delinquency : Trends and perspectives*. New York : Guilford Press.
42. Rutter, M.(1980). *Changing youth in a changing society : Patterns of adolescent development and disorder*.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43. Satir, V.(1964).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lifornia : Science & Behavior Books.
44. Snarey, J.(1993). *How fathers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 A four-decade study*. Harvard University Press.
45. Wilson, H.(1980). Parental supervision : A neglected aspect of delinquenc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0, 203-235.